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4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3. 1. 10.(화) 15:45~16:36
- 장 소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5층 이음아트홀
- 출석위원 : 정병국 위원장  
김진각 위원  
배은주 위원  
서승미 위원  
이훈경 위원  
장미진 위원  
정갑영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성태 위원
- 불참위원 : 김미라 위원  
장인주 위원

## 1. 성 원 보 고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문화예술진흥법 24조 4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8기 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정갑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갑영 위원님께 위원장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번 제348차 위원회 임시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게 된 정갑영입니다. 제34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회 성원 여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성원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무처에서 종이 문서가 없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에 회의자료를 넣어드렸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어려우시면 사무처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종이 없는 회의도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보고를 드리면, 현재 12인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인 장인주 위원님과 현재 제주도에 출장 중이신 8기 김미라 위원님께는 사전에 위원회 현안 의제에 대해 미리 말씀드렸고 “그 회의를 개최해도 좋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카톡으로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 회 선 언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예,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4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의 결 사 항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에 순서

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85호 위원장 호선의 건입니다. 위원장 호선의 건에 대해서 류재수 기획조정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고 정관이 개정되면서 위원장님을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원장 호선제 추진 경과입니다. 2005년 8월에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그때 한번 호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김병익 위원장님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9년 1월에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다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서 기획재정부의 통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운법 상의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이 해제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조문을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라고 24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정리를 한 부분은 ‘자천’이나 ‘타천’을 받아서 해당 위원님께서 최종 수락하시면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이후 절차로 호선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일 호선 하실 수도 있고 이후 날짜를 정하신 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후보자께서 위원장으로 어떻게 기관을 이끌어 나갈지 먼저 밝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신 후 이에 응답하시는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위원 직무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내셨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직무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서 공유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처음 안보다 조금 더 소요될 것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받아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질의를 진행한 후 선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선출을 할 때 이런 논의들이 개진된 후 당일에 호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8쪽에 회의 의사 진행자입니다.

후보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정갑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주고 계신데요. 출마하신다고 하면 다음 연장자이신 홍성태 위원님께서 위원장 역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수로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무기명 서면 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과정으로 후보자께서 소견을 발표하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17조를 준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재적 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셨고 투표를 진행해서 찬성 의사를 수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2명, 3명이 출마하셨을 경우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후보자가 3명 이상에서 안 나올 경우 득표 결과 상위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온 사람을 위원장으로 결정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 호선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예,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죠? 호선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배은주 위원** : 7페이지의 2번 중에서 먼저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당일 선출하는 방법과 차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요?

**배은주 위원** : 그러니까 호선을 오늘 마무리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위원장님, 그런데 제 생각은 당일과 다음에 하는 것은 결정해야 하는 절차라기보다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 봐야 해서 다음에 할 수도 있겠으나 만일 저희의 의견이 모아져 1인만 추천되면 당일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은주 위원** :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그러면 간단합니다. 후보를 추천해 주시고 우리가 동의하고 결정하면 끝납니다.

**배은주 위원** : 저는 전 장관이셨던 정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못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술위원회에 처음 올 때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정말 국가의 격을 결정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할 수 있는 예술가였으면 좋겠다. 그 상징성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문화행정이나 문화정책은 우리 사무처 직원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수렴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그런 상징성이 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여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2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8기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도 8기에 들어왔으니까요. 기존에 경험이 있는 8기 3명의 위원님들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3년의 임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도 예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원칙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장르별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한데요. 연배가 좀 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마인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술인들의 전반적인 상징성을 갖기에는 젊으신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원칙을 좀 양보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예,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술인이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자신의 의견을 조금 유보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배은주 위원님께서서는 정병국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정병국 위원께서 동의하시는지? 만약 못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국 위원** : 예, 동의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좋습니다.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세요? 제가 다소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지만, 회의의 결정은 한순간에 내려지는 것이니까 논의가 충분히 됐고 이해가 되었다면 빨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정숙 위원** : 동의합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지금 위원님들이 많지 않아요. 이 안에서 호선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단독 후보가 나온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잘 생각을 해 주세요. 오늘 참석한 또는 위임한 전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정병국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정병국 위원께서는 이에 동의하셨고요. 이제 남은 것은 투표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투표의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거수가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할 것이지? 사실 거수로 하나 무기명으로 하나 사실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절차상 저는 무기명을 제안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그냥 거수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선배 위원님의 말씀을 듣죠.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 투표지를 준비해 주시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투표용지가 여러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혹시 그 시간 동안 위원장 후보의 의견이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시죠.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좋습니다. 지금 단독 후보로 선정되셨는데 정병국 위원님의 추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 일단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주 막중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최종적으로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정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처음 저에게 많은 분으로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자리를 권유받아 망설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백번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모두에 인사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몸담고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정치적 바람에 의해서 엄청난 회오리 속에 빠지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개되는 상황들도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많은 예술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과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창작이고, 창작하며 이념이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가가 창조하고 작품으로 완성을 시킨 뒤에는 작가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자인 국민이,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예단, 재단해서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적은 돈을, 풍족하지 않은 돈을 얼마만큼 극대화해서 효율을 올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수혜 받고 그 수혜가 국민에게 다시 선순환돼서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기금은 분명 순수예술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산업으로까지 연장될 수 있는 풍토와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정치에서 국회의원을 20년 했고 장관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앞에서 우리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 우선 “기금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더 이상 문화예술이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게 하는데 제가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다고 하면 제가 소임을 맡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후보자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테니까 투표지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세요.

(무기명 서면 투표 및 개표)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지금 10인이 투표하셨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정갑영 위원장직무대행** : 10인 전원이 찬성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차기 위원장으로 정병국

위원께서 선임되신 것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갑영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죠.

**정병국 위원장** : 우선 저에게 이 직무를 맡겨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으실 겁니다. 우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품격이 없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품격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일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위원장이 아무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장관 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행도 했습니다만,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가능하면 우리의 정책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 그리고 향유자들을 직접 많이 만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가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기금을 더 확보할 것인가?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예술인들이 원하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술인들의 활동이 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유자에게 전달되고 선순환되어서 지속 가능해지는 문화예술계의 풍토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하면서 현장도 많이 가봤고 많은 예술인과의 대화도 해봤습니다. 1년간 장관직을 하고 직접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장르별 대표를 맡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문화행정이나 경영의 전문가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만큼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지금부터는 새로운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설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보 고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으로 1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위원님들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쪽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선임계획(안)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안건은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선임계획(안)입니다. 현재 남요원 감사께서는 2022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임 감사가 오실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34조 등 규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최종적으로 10쪽의 선임절차를 말씀드리면, 감사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임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이 중에는 위원과 외부위원이 들어가시는데 외부위원은 위원정수의 1/3 이상 1/2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보시면 1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하시면서 임원추천위원회 내에서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서류·면접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차 회의가 끝나고 모집공고를 일간지에 합니다. 15일 정도 공고를 해 왔고요. 공고에서 접수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면접심사 및 상임감사 추천후보자를 최종적으로 복수로 선정하신 다음에 후보자 추천서 등을 문체부 소관과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인사검증을 통해서 문체부 장관님께서 임명하는 절차를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 내부에 운영규정이 있고요. 3조에 따라서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 5명에서 15명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밑에 과거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명으로 구성했는데요.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 예전에 보면 3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위원은 2인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1인은 문체부 실·국장 선에서 1인을 했고요. 나머지는 직원의 의견 대변이 가능한 노조 추천 1인을 포함시켜서 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건자료를 보시면 2016년, 2018년, 2020년 감사님을 할 때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남요원 감사님을 할 때 외부추천위원을 보시면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말하자면 직원의 의견을 대변할 노조 추천 1인이 포함되었습

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안건을 통해서 위원님 3인과 외부위원 2인 등 5인으로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도 오늘 되셨는데 문체부 등의 의견에서는 또 다른 축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서 리더십이 빨리 갖춰졌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늘 구성되자마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임계획안을 보시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최종 임명은 3월 중에 감사님 임명까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참고로 감사님이 임명되시면 상임감사님의 처우로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대표의 80%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80% 정도의 연봉을 받으시고 업무추진비 약 1,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3인의 위원으로 정리한 후 추후 서면의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의결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부에서 메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다만, 오늘 여기에서 3인을 어떻게 해 주실 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 사무처에서 판단컨대 말씀드렸듯이 외부위원 선임은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인을 우리 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거든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는 위임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3인은 제가 호선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인사는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보고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차기 위원회 전체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8기 위원회 워크숍을 1월 26일 목요일 2시부터 시작해서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고요. 그리고 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까 류재수 부장이 말씀드렸듯이 의안으로는 중기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으로 실링을 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2024년 예산안의 규모를 정하는 지출한도를 정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사업과 예산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고롭게도 취임을 하시자마자..... 이 사업이나 예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어진 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드릴 텐데 보시고 1월 27일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월 26일 워크숍을 하면서 나주에서 1박을 하고 1월 27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1월 26일에 나주로 내려오시고 27일 전체회의 이후 오후에 가시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가능하신 지에 대해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보고해 드린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보고한 대로 이 워크숍은 굉장히 중요한 워크숍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기에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진행해서 혼란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일단 각 장르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그 분야의 의견을 가능하면 수렴해서 의견을 가져오시고요.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참고를 하실 때 감사원 감사자료나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참고하시면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특히 국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감사 때 의원들에게 제공되고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의견을 개진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우리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왕왕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보면 기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내 분야 중심으로만 보다 보니까 많이 왜곡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는 융복합의 시대이기도 하고 함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인식해서 그때 워크숍이 알차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급하지 않았으면 제 생각은 현장의 분야별로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 자리도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열개를 그려 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분야별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월 위원회 워크숍은 1월 26일 오후 2시에 시작하고 전체회의는 1월 27일 오

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시 별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 및 교통편은 기획조정부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5.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4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회의종료)

